

천지개벽은 사람이 먼저 개벽되어야

인간의 모든 문제는 누구나 인정하듯이 말이 아니고 실천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진다

천지개벽은 궁극적으로 인간개벽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개벽이 곧 천지개벽이다. 인간개벽이 없는 천지개벽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상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인간의 정신개벽인 것이다. 이는 나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연결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의암 손병희 선생은 “썩은 것을 맑고 새롭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니 천지만물의 개벽은 공기로 써 하고 인간 만사의 개벽은 정신으로써 하니 너의 정신이 곧 천지의 공기니라” 했다. 또 “이제 그대들은 하지 못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각각 자기에게 본래 있는 정신을 개벽하면 만사의 개벽은 차례의 일이니라”하면서 의암은 인간의 정신개벽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증산의 해원상생(解冤相生) 사상과 전선무악공사(全善無惡公事), 그리고 소태산의 개교표어(開教標語: 물질이 개벽이니 정신을 개벽하자) 등은 모든 인간의 정신개벽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올바른 말과 행실의 중요성은 예로부터 ‘거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불변의 격언으로 후대에 면면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성경에서조차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기록되고 있다. 여기서 주는 자신 속에 있는 양심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 없는 생활을 가을의 서릿발처럼 냉엄히 실행해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동학(東學)을 창시한 수운 선생도 “운수가 좋거니와 다향아 도덕이라. 너희라 무슨 팔자로 불로자득 한단말가. 하염없는 이것들이 날로 믿고 그러하니,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한울님만 믿었으라. 네 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원(捨近取遠)한단말가”라고 하면서 실천없는 자들을 단호히 꾸짖고 있다. 원불교의 창시자인 소태산 역시 공부없이 도통(道通)을 꿈꾸는 무리, 노력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 준비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 사술로 대도를 조종하는 무리,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많음을 한탄하고 이들을 낫도깨비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더욱 밝아짐

에 따라 이러한 무리는 발붙일 곳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인도(人道) 정의 요긴한 법만이 세상에 서게 될 것이니 이러한 세상을 일러 대명천지(大明天地)라 한다고 하였다.

오늘날 정보취득의 용이와 접근의 편리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 때문에 말과 행동, 속과 겉이 다른 행동을 금방 알고 판단하는 초고속정보화시대, 대명천지에 살고 있는 까닭이다. 이제 거짓말하고 이중적 태도를 취해서는 국민과 사회를 화합하고 통합할 수 없다.

진정한 하나된 세상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짓밟는 것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진정한 양심가로 거듭날 때만이 가능하다. 하나의 작은 악과 죄를 짓는 것을 살얼음 위를 걷는 심정으로 조심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갖춰질 때, 천지의 개벽이 시작될 수 있다. 개벽적 실천은 나와 너, 동지와 적의 이원적 대립을 전제하지 않고 오히려 둘을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일원적 조화와 융화로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상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나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포용하고 극복함으로써 상호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천당이 죄인에게는 지옥”

그날에는 하나님이 된 의인들은 빛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벗지 못한 사람은 지금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이 될 때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무궁토록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빛으로 화한 의인의 몸에서 발산하는 빛이 너무 너무 뜨거우므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망의 신이 다 멸하여 없어진 고로 의인의 몸에서 발산되는 빛으로 말미암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무궁토록 뜨거워서 펄펄 뛰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해업치는 물고기 자세~

효능: 등이 앞으로 굽은 사람에게 특히 좋은 자세. 갑상선과 부갑상선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몸 안에서 호르몬 분비를 활발하게 도와준다.

동작①: 등 대고 누워서 양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양 손은 엄지를 안으로 넣

어 주먹을 쥐고 팔꿈치를 구부려 가슴에 놓는다.

동작②: 숨을 마시고 내쉬며 양 팔꿈치로 바닥을 힘껏 밀어 가슴을 들고, 고개를 뒤로 젖혀 머리의 정수리를 바닥을 대려고 노력한다. 척추 뼈가 하나하나 퍼지는 느낌으로 유지한다. 10초 유지 5회.

폐 기능 향상에 좋은 코브라 자세~

효능: 복근과 앞 목이 팽 퍼지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주는 자세이므로 폐기능 향상에 탁월하다.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항상 뒷목이 빠근한 사람,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다.

동작③: 바르게 엮드린 자세로 다리를 쭉 펴서 모으고 팔을 굽혀 손바닥을 가슴 옆에 둔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천천히 깊은 호흡을 5~10회 반복한다.

동작④: 숨을 마시면서 눈을 크게 뜨고 머리를 들어 상체를 밀어내듯이 서서히 올린다. 시선을 뒤쪽 발뒤꿈치를 바라보듯이, 갈비뼈와 복부를 열고 숨을 5~10초간 참는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동작④

다. 숨을 내쉬면서 팔로 바닥을 미는 힘보다 배를 바닥에 붙이려는 힘이 강하도록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배 가슴 턱 순으로 돌아온다.*



적암유록 新해설
수정판 제75회

歌辭總論(二) 가사총론

黑龍壬辰初運(흑룡임진초운)으로
松松之生(송송자생)마쳤으며
赤鼠丙子中運(적사병자중운)으로
家家之生(가가자생)마쳐이고
玄兔癸卯末運(현토계묘말운)발운으로
弓弓之生傳(궁궁자생)했네
松松家家以後(송송가가)이후에는
弓弓乙乙田田(궁궁을을)을전으로
河田洛田天地兩白(하천낙천지양백)
弓圖乙書兩白人(궁도를을)양백인을

초운(初運)인 임진(壬辰=黑龍흑룡)왜란에는 소나무(松)가 나를 살리며(명나라 원군 사령관인 이여송李如松 장군을 말한다. 또한 소나무 숲으로 피한 사람은 살았다고 하였다.) 중운(中運)인 병자(丙子=赤鼠적사)호란에는 집(家)이 나를 살리며(폭설이 내리는 겨울에 일어난 전란에는 산으로 피란 간 사람은 눈과 추위에 얼어 죽고 온돌방이 있는 집안에 있으면 산다는 것을 말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머지않아 있을 말운(末運)에 일어날 계묘(癸卯=玄兔현토)의 일에는 궁궁(弓弓) 즉 궁을 심승 정도령을 만나 감로해인을 받아야 살수 있다고 전하였느니라. 요약하면 송송(松松=임진왜란) 가가(家家=병자호란)이후에 현토계묘말운(玄兔癸卯末運)에 목숨을 보전하려면 궁궁을을전전(弓弓乙乙田田=궁을 심승 정도령)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궁궁을을전전은 하도의 전, 낙서의 전에서 나오는 궁을이요 하도(궁도=태백), 낙서(을서=소백)의 양백(兩白)에서 나온 궁을 양백 심승인을 말한다.

三秘中出十勝之理(삼비중출십승지리)
易理八卦推算(역리팔괘추산)하면
雙弓四乙隱秘中(쌍궁사을은비중)
遊離處發見(떠난처발견)하야
天坡弓弓道下處(천파궁궁도하처)가
十勝福地(십승복지)아니는가
此外十勝(차외십승)찾지 말고
雙弓之間(쌍궁之間)차질세라
九宮八卦十勝之理(구궁팔괘십승지리)
河洛靈人生子女(하락영인생자녀)을
前無後無末運妙法(전무후무말묘법)
地天泰卦仙八卦(지천태괘선팔괘)라

삼비(三秘=송가전)의 세 번의 운수(運數)중 마지막 환란의 피란처가 심승이라는 것은 역의 이치와 팔괘를 추산해보면 쌍궁과 사을(四乙) 가운데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피란처를 발견할 수 있으니 그 피란처가 하늘 고개(天坡)인 궁궁이요 도하처(道下處)요 심승의 복된 땅이 아니단가?

말세의 피란처는 심승 밖에서 찾지 말고 쌍궁 즉 궁궁 사이에서 찾아보이라. 구궁팔괘(九宮八卦)중의 심승(十勝=하나님)이 하도낙서의 이치에 따라 신령한 하늘의 사람으로(5도 72궁 정도령)나와서 하늘의 자녀를 생산(十人生產-男一女)하는 일은 전무후무(前無後無)한 말운(末運=중전운)의 묘법(妙法)이요 아들격인 6도 81궁 정도령이 천지개벽을 완성하여 (천지비만天地否에서 지천태대天泰로 바뀜) 불사영생의 지상신선 세계를 이루느니라.

邪臨嚴嚴盛東西之學(사림차성동서학)
正道淺微行亦難(정도침미행역난)을
權化朝鮮名勝地(권화조선명승지)에
天神加護異蹟(천신가호이적)

牛聲在野唵嘛聲中(우성재야암마성중)
非雲眞雨喜消息(비운진우희소식)에
八人登天昇降臨(팔인등천승강)하야
賤反貴人新性(천반귀인신성)으로
有雲眞露首垂立(유운진로수수립)에
心靈變化(심량변화)되단말가
牛性在野十勝處(우성재야십승처)엔
牛鳴聲(우명성)이 浪籍(낭자)하고
十口之家五口一心(십구자가오구일심)
陰陽場位一家和(음양장위일가화)라

동서양의 학문과 종교에는 사뭇 학설이 불길같이 일어나니 정도(正道)는 점점 쇠미해져서 행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무궁화의 나라 조선(한국)은 세계의 명승지로서 하나님의 가호(加護)와 이적(異蹟)이 나타나나니 우성(牛性=정도령)의 들판에는 영적 암마(영모靈母)를 부르는 소리(소울음 소리)가 울려 퍼지는 중에 구름 같으나 구름이 아닌 진짜 은혜의 비가 내린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느니라. 불(火=八人팔인)같은 성령의 은혜가 하늘로 오르내리면 천(戰)한 사람이 귀(貴)한 사람의 품모와 성품으로 새롭게 거듭나니 구름 아닌 구름에서 내리는 진짜 감로 해인이 머리에 드리우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느니라.

우성(牛性=정도령)의 들판인 심승처(十勝處)에는 소 울음소리가 낭자(浪籍)하고 심승을 밟고 따르는 집안(十口之

家)은 심승 진리(五口오구=田전)를 일심으로 배우고 실천하니 음양전(陰陽田=5도 72궁, 여인 한분과 6도 81궁 정도령이 하나가 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에 진정으로 모시면 온 집안이 화목하게 되느니라.

河圖天弓甘露雨(하도천궁감로우)로
雨下三貫三豐理(우하삼관삼풍리)요
洛書地乙報答理(낙서지을보답리)로
牛吟滿地牛聲出(우음만지우성출)을
生我弓弓無處外(생아궁궁무처외)니
雨下三迎者生(우하삼영자생)일세

하도(河圖)는 천궁(天弓) 즉 하늘의 하나님이 감로우(甘露雨)를 내리는데 그것은 화우로(火雨露)의 삼인(三印)을 하나로 관통한 삼풍(三豐)이라는 것을 나타내었고 낙서(洛書)는 지을(地乙) 즉 땅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천궁)에게 보답하는 이치를 그려놓은 것이니 소 울음소리 즉 암마의 생령 말씀이 지상에 가득 차게 울려 퍼지는 곳이 있나니 말세에 나를 살리는 것은 궁궁심승(弓弓十勝) 이외에는 없느니라. 심승자인(十勝之人)이 내려주는 화우로(火雨露) 삼풍해인(三豐海印)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박명희 /교서연구가 (010-3912-5963)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673-4635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10)7518-9981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오산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浜祭壇 : (045)489-9343
神戸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